

자기소개서

소 속	○○초등학교	직 위	○○	성 명	○○○
-----	--------	-----	----	-----	-----

1. 인생의 밑알이 되어준 첫 번째 걸음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 1학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담임선생님께서 사랑이란 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컸던 콧물 질질 흘리던 시골 촌뜨기들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보살펴주고 재미있는 수업과 놀이로 지도해 주시고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보며 선생님이란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어린 마음에 느낄 수 있었고, 아직 글씨도 서툰던 제가 공책 위에 꺾꺾 눌러쥔 첫 번째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학창 시절 내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도우며 느꼈던 따뜻함, 선생님께서 보여 주신 배려와 책임감은 제게 교사라는 직업이 가치 있고 소중한 직업인지 몸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첫 선생님이 된다는 일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 아이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꿈을 안고, 저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진짜 교사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활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학교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아리 생활은 단순한 영상제작을 넘어, 협업과 책임감,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기획과 회의, 현장 취재를 통해 저는 사람을 이해하고, 이야기를 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교실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믿었구요.

어릴 적 꿈을 행복한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걸어온 지금, 저는 교사로서 책임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심과 꾸준한 열정으로,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그려나가는 교사로 말이죠.

2. 소중히 꾸워 온 꿈을 띄우기 위한 두 번째 걸음

마침내 제게 첫 번째 교실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꾸어 온 교사로서 첫 교실은 고향 ○○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되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았고, 모두가 다른 색을 가진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작은 손을 맞잡고 마음을 읽어주는 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다가가야 하는 교사라는 역할의 무게를 매일매일 새롭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교사’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약 7년간의 첫 학교생활을 끝내고 초·중통합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초·중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함께 연계되는 학습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 요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다른 배경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며 교육하는 것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교사는 한 명 한 명의 성장 곁에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 꿈의 소중함을 알고 배움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걸음

농어촌 소인수 작은 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에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2~3명의 학생, 이에 따른 단조로운 수업, 업무 처리에 지친 일상 등 수업하는 것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있었고, 스스로 나태해 지기까지 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저의 교직원! ‘교사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며, 동시에 끊임없이 배우는 길’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되새기며 새로운 변화와 선택이 필요했고 남들이 말하는 ‘교육의 ○○학교’라 불리는 학교로의 진출이라는 선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 구성, 교실에서의 유연한 반응, 수업 후의 성찰 과정까지, 모든 순간이 교사로서 자질을 다듬는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력하며, 단편적인 전달이 아닌 '함께 탐구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의 참여 속에 수업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생실습생들을 지도하는 기회를 통해 저는 또 한 번 성장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수업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 수업의 맥락과 흐름,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도 끊임없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교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제 스스로 더 많이 배우고 교사로서의 성장이 깊이를 이해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야는 넓어졌고, 동료 교사로서 책임감 또한 한층 깊어졌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운 수업의 노하우와 열정을 펼쳐보고자 큰 규모의 혁신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고, 좋은 동료 교사들과의 협력적 프로젝트 학습,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창의적인 수업 나눔 등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진정한 효과를 느낄 수 있었으며 열정과 호기심은 저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는 더 나은 교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교단에서의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우기 위해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고민하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법을 느낀 행복한 교직생활이었습니다.

4. 행복한 꿈을 더불어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기 위한 네 번째 걸음

교사는 혼자서 교실을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고민하며, 학부모와 함께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는 협력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지지해 주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업무전담팀의 일원으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컴퓨터실, 특수반, 도서관, 시청각실, 자치복합실, 청소년복합놀이시설 등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기획·지원하였으며, 수업나눔,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교사들과의 마음을 나누는 하나의 창구로써 배려와 협력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소인수 농어촌 학교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 학생 수 확보를 위해 어울림학교 및 전북미래학교 지원, 인근 유치원 홍보활동 전개, 학교 홍보지 마련 등 학교 살리기 활동에 권위로 지시하는 ○○이 아니라 함께 현장을 고민하고 공감하며 길을 찾는 ○○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즐거우면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로 귀결된다고 믿기에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사를 존중하며, 민원 해결의 주체로써의 역할, 교장과 교사의 가교로의 역할 등 함께 짚어지는 동반자로서의 ○○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 사랑과 열정의 꿈을 피우기 위한 마지막 걸음

첫째, 단기적인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행복과 성장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둘째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 구조를 만들어 교사들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며, 학생·학부모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포용적 리더십과 소통의 중심으로써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조직문화, 존중과 배려, 협력이 살아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이끌겠습니다.

넷째 수업이 즐겁고, 아이들이 웃으며 등교하며,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인드로 다가가는 성장의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교육, 디지털 전환, 학생 주도성 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